한전 공대 건립·운영 예산 지역 발전 위해 써야

건립 7천억·운영 600~800억 투입…지자체 유치경쟁에 부담 가중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세계적 기업 육성 등 설립 취지 돌아봐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전공대 최종 입지를 경쟁하면서 제안서에서 내건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 지원 예산을 지역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관련 연구소 설립, 에너지 관련 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한전공대 입지 선정에서 부지 조성 지원, 부지 제공 조건만이 아니라 설립·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나 전남도가 떠안게 되면서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전공대가 사립대인데다 한국전력공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양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존 취지를 감안해 광주시나 전남도가 제안서에서 약속한 설립·운영 지원 예산을 지역 발전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 14~18일자 1·3면 보도〉이 계속되면서 한전 내부와 정치권 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건립에는 최대 7000억원, 1년 운영 예산은 600억~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의 부담은 부지 조성 지원 및 부지 제공 조건 등으로 추정됐으나 '한전공대 입지선정 전문가위원회'는 2단계 평가 기준에 설립 및 운영 지원 계획까지 포함시켰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당한 금액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나 전남도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건립 및 운영 예산을 에너지 관련 세계적인 연구소 설립이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관련 기업 육성 등에 사용하는 등 실제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전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계획이 제안됐다고 하더라도 이행 여부에 대한 실시협약 등 실제 지원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원 규모가 확정되더라도 어느 곳에 지원할 지 결정된 바 없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지자체가 과도한 지원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감축할 가능성이 있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한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산단, 남구 승촌동 영산강문화관 수변공원, 북구 오룡동 첨단산단 3지구 등을 3곳, 전남 나주 산포면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나주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 나주 혁신로 부영CC 등 3곳에 대해 현장 실사 등 정밀 심사를 벌인다. 이 가운데 예정대로 광주 1곳, 전남 1곳 등 2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뒤 입지여건 등 1단계(65점), 경제성 등 2단계(35점)을 종합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최종후보지는 28일 발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文대통령 '북미 核담판' 디딤돌 속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대국면…金 답방 3~4월 유력

북미정상회담 2월말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길잡이'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도 다시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2월 말 언젠가에 만나기로 합의했다. 나라를 골랐지만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날짜 공개만 남겨뒀을 뿐 '북미정상회담 2월 말 개최' 자체는 기정사실이 됐으며, 이제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서 북미가 어떻게 '주고받기'를 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월 말까지 남은 한 달 여 동안 북미가 생산적이고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양측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북미 간 담판의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까지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중재 행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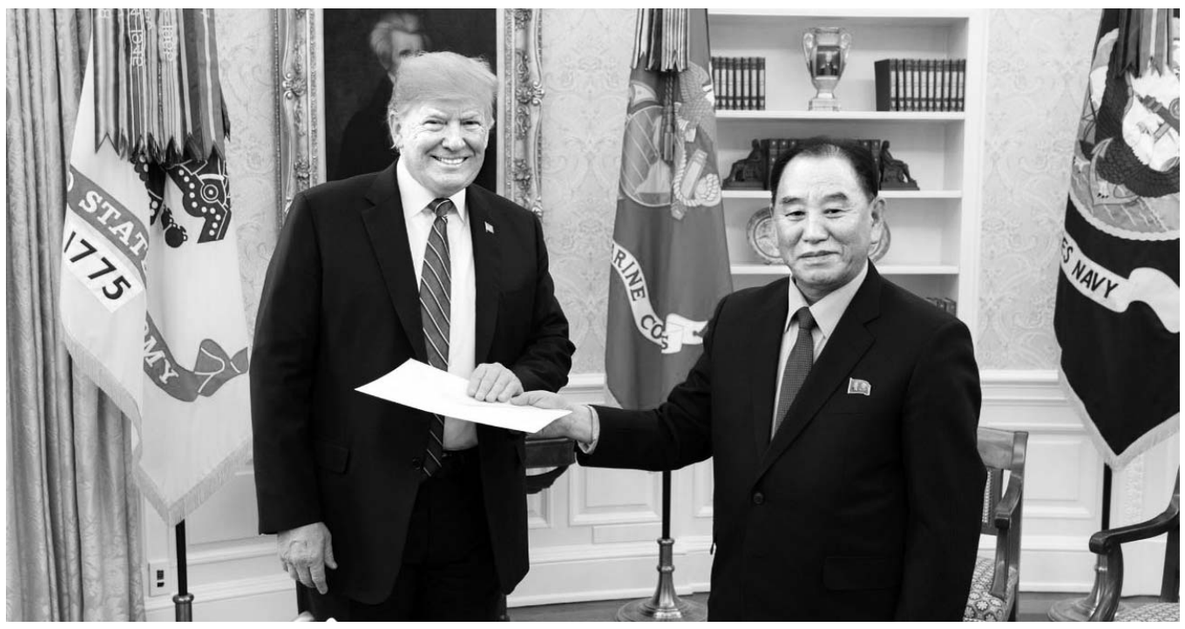
물론 북미 두 정상의 만남 일정이 잡힌 것만으로도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북미 양측이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 1차 북미정상회담이 상징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비교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 역시 더 세밀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지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중재 행보에 모든 외교력을 쏟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은 올해 상반기 '최대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3월~4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위원장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맞춰 답방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으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에 따라 3월 중순~4월 사이가 합리적인 답방 시기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지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답방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 및 의제 역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김정은의 친서 전달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사진을 게시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구속이냐 기각이냐…범죄 중대성이 관건

내일 영장심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그의 구속여부는 적용된 범죄혐의의 중요성과 검찰의 범죄소명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범죄혐의가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영장 발부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적지 않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개별 범죄혐의는 4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반헌법적 중대범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도 영장 발부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일께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각 범죄혐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중심으로 범죄의 반헌법적 성격을 부각해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레이더-저공위협'

한일 갈등

탐지음 공방 확대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 함정의 레이더 조사(照射·비춤) 주장과 한국 군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논란이 '레이더 탐지음' 공방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레이더 경보음을 한국 군함(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 증거로 이르면 이번 주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리 군은 경보음만 공개할 경우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방위성이 '새로운 증거'로 초계기에 기록된 소리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하와이를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귀국하는 20일 이후 공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일본은 P-1 초계기에 장착된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녹음된 경보음을 증거로 내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RWR은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전환하는 장치다. 항공기를 위협하는 신호가 포착되면 어떤 장비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석해 조종사에게 화면으로 시현해주는 장비다.

일본이 그동안 공개했던 동영상에는 RWR 경보음이 나오지 않는다.

/연합뉴스

단독 섬·전국 임야
바로삽니다.010-6834-7400
※전남,북지역/지분환영,1억원 이하※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대지 691㎡ 주택 63㎡ 35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음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5천
•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별장형주택 남평읍 수원리 대지 403㎡ 주택 143㎡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음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핑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교환가능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화정동 건물 대지 388㎡ 건평 581㎡ 보증금 1억2천 월 700선 수입 13억8천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10억
•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화순 능주면 면소재지 대지 588㎡ 3층건물 431㎡ 은행 1억 매도 1억2500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평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태인읍 1213㎡ 감정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4억3천에 매도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동산 매매
●남악 신도시●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매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조은날부동산
☎ 010-3111-5087

광주 시민을 위한 신년 앙코르 무료 세미나
부동산 시장전망 투자전략大특강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
99% 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시~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제시!!
장 소 광주상공회의소 지하1층
일 시 2019. 1. 23(수) 오후 2시, 7시
문의전화 1899-4267 · 010-9030-5209
※사전 예약 필수·선착순 좌석배정(총 참석 인원 100명)
제1강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투자전략 大공개
– 2019년 상반기 가장 확실한 아파트 갭투자 방법 공개
– 주택 임대사업으로 상위 1%가 되는 투자전략
– 소액투자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비법 공개
제2강의 ▶땅! 땅! 땅! 토지투자 유망지역 大공개
–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자 전략 대공개
– 미래가치 확실한 개발지 찾는 법 공개
– 광주/전남지역 최고의 입지와 실투자 매물공개
– 개발지 토지 소액 투자로 노후 연금 이상의 수익 내는 방법 전격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MTN머니투데이-김생민의 비즈정보쇼
(2017년 우수기업 선정 방송)
(2017년 스포츠 서울 혁신 한국인 선정)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LBA법률중개사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20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